# 2.7 Linear Mappings

지금까지 Vector space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

만약 이러한 Vector space  $V_1,V_2$  2개 존재할 때, 각각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Mapping을 살펴보는 장입니다. 즉, 구조에서 더 나아가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.

# **Linear Mappings**

mapping을 적용할 때, 이 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원합니다. ightarrow 선형성  $두 개의 실수 \ \text{vector space} \ V, W$ 가 있다고 가정할 때, 아래의 조건을 성립하면 mapping  $\Phi: V 
ightarrow W$ 는 vector space의 구조를 유지합니다.

$$\Phi(\mathbf{x} + \mathbf{y}) = \Phi(\mathbf{x}) + \Phi(\mathbf{y})$$
$$\Phi(\lambda \mathbf{x}) = \lambda \Phi(\mathbf{x}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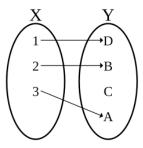
 $\forall x, y \in V \, \forall \lambda, \psi \in \mathbb{R} : \Phi(\lambda x + \psi y) = \lambda \Phi(x) + \psi \Phi(y).$ 

• 더 자세한 내용은 Chapter 4에서 다룹니다.

**Definition 2.16** (Injective, Surjective, Bijective). Consider a mapping  $\Phi: \mathcal{V} \to \mathcal{W}$ , where  $\mathcal{V}, \mathcal{W}$  can be arbitrary sets. Then  $\Phi$  is called

- Injective if  $\forall x, y \in \mathcal{V} : \Phi(x) = \Phi(y) \implies x = y$ .
- Surjective if  $\Phi(\mathcal{V}) = \mathcal{W}$ .
- Bijective if it is injective and surjectiv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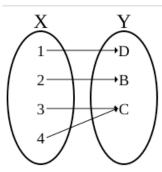
# Injective


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단사 함수

- 단사 함수, 일대일 함수
-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를 공역의 서 로 다른 원소로 대응시키는 함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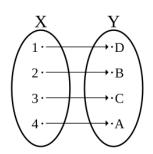
#### Surjective



<u>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전사 함수</u>

- 전사 함수
-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

**Bijective** 



<u>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전단사 함수</u>

- 전단사 함수, 일대일 대응 함수
- 두 집합 사이를 중복 없이 모두 일대일 로 대응시키는 함수
- mapping  $\Psi:W o V$  존재,  $\Phi^{-1}$ 로 표기
- ullet Isomorphism:  $\Phi:V o W$  linear and bijective
- Endomorphism:  $\Phi: V \to V$  linear
- Automorphism:  $\Phi:V \to V$  linear and bijective
- We define  $\mathrm{id}_V:V\to V$ ,  $x\mapsto x$  as the identity mapping or identity automorphism in V.

Isomorphism (동형 사상)

- ullet 벡터 공간 V 와 W사이에 일대일 대응을 보장하는 선형 함수
- 즉, V의 구조 (덧셈, 스칼라곱)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W로 옮길 수 있습니다.
- 예시
  - $\circ~\Phi:\mathbb{R}^2 o\mathbb{R}^2$
  - $\bullet \ \Phi(x,y)=(2x,2y)$

구조를 보존하면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선형 변환

### Endomorphism (자기 사상)

- 같은 벡터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선형 변환, V o V
- 예시
  - $\bullet \ \Phi: \mathbb{R}^2 o \mathbb{R}^2$
  - $\Phi(x,y) = (x,0)$

#### Automorphism (자기 동형 사상)

- 벡터 공간 V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isomorphism
- 예시
  - ullet  $\Phi:\mathbb{R}^2 o\mathbb{R}^2$
  - $\bullet \ \Phi(x,y) = (x+y,y)$

#### Identity Mapping (항등 사상, 변환)

-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내는
- 어떤 벡터 x가 있을 때,  $id_V(x)=x$

#### Homomorphism (준동형사상)

Example 2.19 (Homomorphism) 
$$\begin{aligned} \text{The mapping } \Phi : \mathbb{R}^2 &\to \mathbb{C}, \ \Phi(\boldsymbol{x}) = x_1 + ix_2 \text{, is a homomorphism:} \\ \Phi\left(\begin{bmatrix} x_1 \\ x_2 \end{bmatrix} + \begin{bmatrix} y_1 \\ y_2 \end{bmatrix}\right) &= (x_1 + y_1) + i(x_2 + y_2) = x_1 + ix_2 + y_1 + iy_2 \\ &= \Phi\left(\begin{bmatrix} x_1 \\ x_2 \end{bmatrix}\right) + \Phi\left(\begin{bmatrix} y_1 \\ y_2 \end{bmatrix}\right) \\ \Phi\left(\lambda\begin{bmatrix} x_1 \\ x_2 \end{bmatrix}\right) &= \lambda x_1 + \lambda i x_2 = \lambda (x_1 + ix_2) = \lambda \Phi\left(\begin{bmatrix} x_1 \\ x_2 \end{bmatrix}\right) \;. \end{aligned} \tag{2.88}$$

• 덧셈과 스칼라 곱이 정의된 벡터 공간 사이에서, 이 연산들을 보존하는 함수(mapping)은 모두 homomorphism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### 정리 (Theorem 2.17)

**Theorem 2.17** (Theorem 3.59 in Axler (2015)). *Finite-dimensional vector spaces* V *and* W *are isomorphic if and only if*  $\dim(V) = \dim(W)$ .

유한한 차원의 두 벡터 공간 V,W가 있을 때,  $\dim(V)=\dim(W)$  라면, V와 W는 isomorphic 합니다.

즉, dim이 같으면 대수적인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.

또한  $\dim(V) = \dim(W)$ 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linear mapping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.

Remark. Consider vector spaces V, W, X. Then:

- For linear mappings  $\Phi:V\to W$  and  $\Psi:W\to X$ , the mapping  $\Psi\circ\Phi:V\to X$  is also linear.
- If  $\Phi:V\to W$  is an isomorphism, then  $\Phi^{-1}:W\to V$  is an isomorphism, too.
- If  $\Phi:V\to W,\ \Psi:V\to W$  are linear, then  $\Phi+\Psi$  and  $\lambda\Phi,\ \lambda\in\mathbb{R}$ , are linear, too.
- $\mathbb{R}^{m \times n}$ **와** $\mathbb{R}^{mn}$  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
- 이는 두 벡터 공간이 **동일한 차원**이고, 이 사이에 linear / bijective mapping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

## **Matrix Representation of Linear Mappings**

**정리 2.17**에 의해서 유한 차원의 vector space에서 dim이 같으면 서로 대수적 구조가 같다고 했습니다. 어느 n 차원 실수 공간  $\mathbb{R}^n$  과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basis를 가지는 vector space를 고려하려고 합니다. 이때 basis 원소의 순서도 중요합니다. 이를 V의 ordered basis 혹은 n-tuple이라고 부릅니다.

- $B=(b_1,\cdots,b_n)$  (ordered basis)
- $\mathcal{B} = \{b_1, \cdots, b_n\}$  (unordered basis)
- $\mathbf{B} = [b_1, \cdots, b_n]$  (벡터  $b_1, \cdots, b_n$  이 columns인 행렬)

vector space V와 V의 ordered basis  $B=(b_1,\cdots,b_n)$  가 있을 때, any  $x\in V$  는 B에 대한 유일한 linear combination (선형 결합)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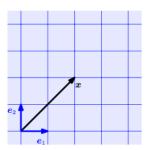
$$\boldsymbol{x} = \alpha_1 \boldsymbol{b}_1 + \ldots + \alpha_n \boldsymbol{b}_n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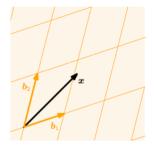
 $\alpha_1, \cdots, \alpha_n$ 는 B에 대한 x의 좌표(coordinate)이고, 다음 벡터는

$$oldsymbol{lpha} = egin{bmatrix} lpha_1 \ dots \ lpha_n \end{bmatrix} \in \mathbb{R}^n$$

ordered basis B에 대한 x의 좌표 벡터 또는 좌표 표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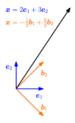
Figure 2.8 Two different coordinate systems defined by two sets of basis vectors. A vector æ has different coordinate representations depending on which coordinate system is chosen.





같은 벡터라고 하더라도, 어떤 basis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좌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Figure 2.9
Different coordinate representations of a vector  $\boldsymbol{x}$ , depending on the choice of basis.



위 예시를 보면 검은색으로 표현된 벡터  $[2,3]^T$ 는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좌표가 (2,3)이 됩니다. (우리에게 익숙한 데카르트 좌표계) 하지만  $b_1=[1,-1]^T,\ b_2=[1,1]^T$  벡터들로 표현하면  $\frac{1}{2}[-1,5]^T$ 가 됩니다.

여기서 중요한 점은 "basis에 따라 달라지는 이 좌표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?" 입니다.

# Transformation Matrix 정의 2.19

Vector space V,W와 이에 대응되는 ordered bases  $B=(b_1,\cdots,b_n),\ C=(c_1,\cdots,c_n)$  이 있고, linear mapping  $\Phi:V o W$ 가 있을 때,  $j\in\{1,\cdots,n\}$ 에 대해

$$\Phi(oldsymbol{b}_j) = lpha_{1j} oldsymbol{c}_1 + \dots + lpha_{mj} oldsymbol{c}_m = \sum_{i=1}^m lpha_{ij} oldsymbol{c}_i$$

해당 식은 C에 대한  $\Phi(b_i)$ 의 유일한 표현입니다.

그리고 m imes n-행렬  $A_\Phi$ 를 transformation matrix of  $\Phi$  하고 하며, 아래로 표현되는 요소들을 가집니다.

예시

#### Example 2.21 (Transformation Matrix)

Consider a homomorphism  $\Phi:V o W$  and ordered bases B= $(\boldsymbol{b}_1,\ldots,\boldsymbol{b}_3)$  of V and  $C=(\boldsymbol{c}_1,\ldots,\boldsymbol{c}_4)$  of W. Wit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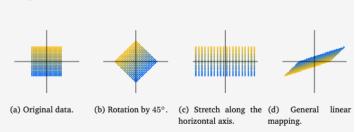
$$\begin{split} &\Phi(\boldsymbol{b}_1) = \boldsymbol{c}_1 - \boldsymbol{c}_2 + 3\boldsymbol{c}_3 - \boldsymbol{c}_4 \\ &\Phi(\boldsymbol{b}_2) = 2\boldsymbol{c}_1 + \boldsymbol{c}_2 + 7\boldsymbol{c}_3 + 2\boldsymbol{c}_4 \\ &\Phi(\boldsymbol{b}_3) = 3\boldsymbol{c}_2 + \boldsymbol{c}_3 + 4\boldsymbol{c}_4 \end{split} \tag{2.95}$$

the transformation matrix  ${m A}_\Phi$  with respect to B and C satisfies  $\Phi({m b}_k)=$  $\sum_{i=1}^{4} \alpha_{ik} c_i$  for  $k = 1, \dots, 3$  and is given as

$$A_{\Phi} = [\boldsymbol{\alpha}_1, \boldsymbol{\alpha}_2, \boldsymbol{\alpha}_3] = \begin{bmatrix} 1 & 2 & 0 \\ -1 & 1 & 3 \\ 3 & 7 & 1 \\ -1 & 2 & 4 \end{bmatrix},$$
 (2.96)

where the  $\alpha_j,\ j=1,2,3,$  are the coordinate vectors of  $\Phi({m b}_j)$  with respect

#### Example 2.22 (Linear Transformations of Vectors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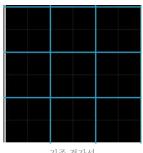
We consider three linear transformations of a set of vectors in  $\mathbb{R}^2$  with the transformation matrices

$$\boldsymbol{A}_{1} = \begin{bmatrix} \cos(\frac{\pi}{4}) & -\sin(\frac{\pi}{4}) \\ \sin(\frac{\pi}{4}) & \cos(\frac{\pi}{4}) \end{bmatrix}, \ \boldsymbol{A}_{2} = \begin{bmatrix} 2 & 0 \\ 0 & 1 \end{bmatrix}, \ \boldsymbol{A}_{3} = \frac{1}{2} \begin{bmatrix} 3 & -1 \\ 1 & -1 \end{bmatrix}.$$
 (2.9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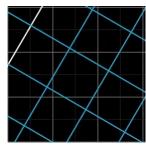
## transformation matrix의 직관적 이해

앞서 살펴본 Linear mapping의 조건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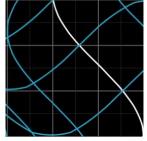
- 직선이 직선이 채로 유지
- 원점 고정 유지
- → 격자선이 평행하고 균등한 상태를 유지



기존 격자선



선형 변환의 예시 (Rotation)



선형 변환 X

### 행렬은 선형 변환을 표현하는 도구

- 모든 선형 변환은 특정한 행렬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
  - 즉, 행렬은 선형 변환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
  - 행렬 곱을 통해 계산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

#### 예시 (transformation matrix)

어떠한 변환을 T라고 했을 때 (Transform) 90도로 회전하는 변환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변환 결과 → 
$$T igg[ egin{pmatrix} x \\ y \end{bmatrix} igg) = igg[ -y \\ x \end{bmatrix}$$

• 행렬로 표현 
$$\rightarrow \begin{bmatrix} 0 & -1 \\ 1 & 0 \end{bmatrix}$$

행렬곱은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벡터의 선형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$$\begin{bmatrix} a & \mathbf{b} \\ c & \mathbf{d}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x \\ y \end{bmatrix} = x \begin{bmatrix} a \\ c \end{bmatrix} + y \begin{bmatrix} \mathbf{b} \\ \mathbf{d} \end{bmatrix} = \begin{bmatrix} ax + \mathbf{b}y \\ cx + \mathbf{d}y \end{bmatrix}$$

### **Basis Change**

#### 기저 변환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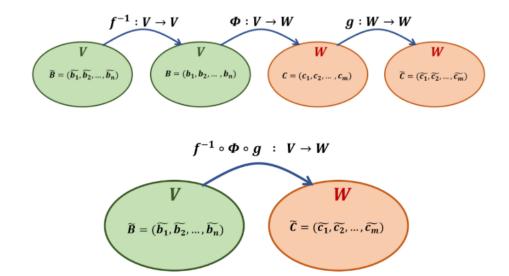
같은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A는 기저가 바뀌면 표현이 달라집니다. 서로 다른 기저에서도 일관된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기저 변환을 배우는 이유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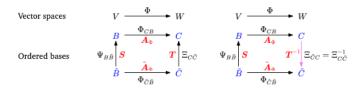
V와 W의 basis를 변경했을 때, linear mapping  $\Phi:V o W$ 의 transformation matrix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V와 W의 두 ordered basis는 다음과 같습니다.

$$B = (\boldsymbol{b}_1, \dots, \boldsymbol{b}_n), \quad \tilde{B} = (\tilde{\boldsymbol{b}}_1, \dots, \tilde{\boldsymbol{b}}_n)$$
 
$$C = (\boldsymbol{c}_1, \dots, \boldsymbol{c}_m), \quad \tilde{C} = (\tilde{\boldsymbol{c}}_1, \dots, \tilde{\boldsymbol{c}}_m)$$

- B,C에 대한 linear mapping  $\Phi:V o W$ 의 transformation matrix를  $A_\Phi\in\mathbb{R}^{m imes n}$
- $ilde{B}, ilde{C}$  에 대한 linear mapping  $\Phi: V o W$ 의 transformation matrix를  $ilde{A}_\Phi \in \mathbb{R}^{m imes n}$

이때, basis B, C  $ightarrow ilde{B}, ilde{C}$  로 변경하면  $A_{\Phi} \in \mathbb{R}^{m imes n}$  에서  $ilde{A}_{\Phi} \in \mathbb{R}^{m imes n}$  로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



## 예시 2.23

#### Example 2.23 (Basis Change)

Consider a transformation matrix

$$\boldsymbol{A} = \begin{bmatrix} 2 & 1 \\ 1 & 2 \end{bmatrix} \tag{2.100}$$

with respect to the canonical basis in  $\mathbb{R}^2$ . If we define a new ba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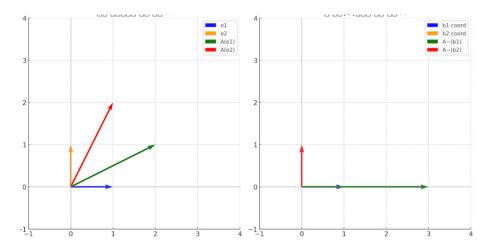
$$B = \begin{pmatrix} 1\\1\\1 \end{pmatrix}, \begin{bmatrix} 1\\-1 \end{bmatrix}$$
 (2.101)

we obtain a diagonal transformation matrix

$$\tilde{\boldsymbol{A}} = \begin{bmatrix} 3 & 0 \\ 0 & 1 \end{bmatrix} \tag{2.102}$$

with respect to B, which is easier to work with than A.

- A: 기존(표준 기저) 선형 변환 행렬
- ullet B : 새로운 기저 벡터들을 열벡터로 갖는 행렬
- $ullet \ B^{-1} = rac{1}{2} egin{bmatrix} 1 & 1 \ 1 & -1 \end{bmatrix}$  : 기저 변환을 위해 필요한 역행렬
- $ilde{A}$  : 새로운 기저 기준에서의 A의 표현 ightarrow 기저 변환된 행렬



# Theorem (정리) 2.20

• 해당 정리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.

**Theorem 2.20** (Basis Change). For a linear mapping  $\Phi: V \to W$ , ordered bases

$$B = (\boldsymbol{b}_1, \dots, \boldsymbol{b}_n), \quad \tilde{B} = (\tilde{\boldsymbol{b}}_1, \dots, \tilde{\boldsymbol{b}}_n) \tag{2.103}$$

of V and

$$C = (\boldsymbol{c}_1, \dots, \boldsymbol{c}_m), \quad \tilde{C} = (\tilde{\boldsymbol{c}}_1, \dots, \tilde{\boldsymbol{c}}_m)$$
 (2.104)

of W, and a transformation matrix  $A_{\Phi}$  of  $\Phi$  with respect to B and C, the corresponding transformation matrix  $\tilde{A}_{\Phi}$  with respect to the bases  $\tilde{B}$  and  $\tilde{C}$  is given as

$$\tilde{\boldsymbol{A}}_{\Phi} = \boldsymbol{T}^{-1} \boldsymbol{A}_{\Phi} \boldsymbol{S} \,. \tag{2.105}$$

### 예시 2.24

#### Example 2.24 (Basis Change)

Consider a linear mapping  $\Phi: \mathbb{R}^3 \to \mathbb{R}^4$  whose transformation matrix is

$$\boldsymbol{A}_{\Phi} = \begin{bmatrix} 1 & 2 & 0 \\ -1 & 1 & 3 \\ 3 & 7 & 1 \\ -1 & 2 & 4 \end{bmatrix}$$
 (2.117)

with respect to the standard bases

$$B = \begin{pmatrix} \begin{bmatrix} 1 \\ 0 \\ 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 \\ 1 \\ 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 \\ 0 \\ 1 \end{bmatrix}), \quad C = \begin{pmatrix} \begin{bmatrix} 1 \\ 0 \\ 0 \\ 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 \\ 1 \\ 0 \\ 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 \\ 0 \\ 1 \\ 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 \\ 0 \\ 1 \\ 0 \end{bmatrix} \right). \tag{2.118}$$

We seek the transformation matrix  $\tilde{\boldsymbol{A}}_{\Phi}$  of  $\Phi$  with respect to the new bases

$$\tilde{B} = \left( \begin{bmatrix} 1\\1\\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\\1\\1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1\\0\\1 \end{bmatrix} \right) \in \mathbb{R}^3, \quad \tilde{C} = \left( \begin{bmatrix} 1\\1\\0\\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1\\0\\1\\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\\1\\1\\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1\\0\\0\\1 \end{bmatrix} \right). \quad (2.119)$$

Then,

$$\boldsymbol{S} = \begin{bmatrix} 1 & 0 & 1 \\ 1 & 1 & 0 \\ 0 & 1 & 1 \end{bmatrix}, \qquad \boldsymbol{T} = \begin{bmatrix} 1 & 1 & 0 & 1 \\ 1 & 0 & 1 & 0 \\ 0 & 1 & 1 & 0 \\ 0 & 0 & 0 & 1 \end{bmatrix}, \tag{2.120}$$

where the ith column of S is the coordinate representation of  $\tilde{b}_i$  in terms of the basis vectors of B. Since B is the standard basis, the coordinate representation is straightforward to find. For a general basis B, we would need to solve a linear equation system to find the  $\lambda_i$  such that

 $\sum_{i=1}^{3} \lambda_i \boldsymbol{b}_i = \tilde{\boldsymbol{b}}_j, j = 1, \dots, 3$ . Similarly, the jth column of  $\boldsymbol{T}$  is the coordinate representation of  $\tilde{\boldsymbol{c}}_j$  in terms of the basis vectors of C.

Therefore, we obtain

$$ilde{m{A}}_{\Phi} = m{T}^{-1} m{A}_{\Phi} m{S} = rac{1}{2} \begin{bmatrix} 1 & 1 & -1 & -1 \\ 1 & -1 & 1 & -1 \\ -1 & 1 & 1 & 1 \\ 0 & 0 & 0 & 2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3 & 2 & 1 \\ 0 & 4 & 2 \\ 10 & 8 & 4 \\ 1 & 6 & 3 \end{bmatrix}$$
 (2.121a)

$$= \begin{bmatrix} -4 & -4 & -2 \\ 6 & 0 & 0 \\ 4 & 8 & 4 \\ 1 & 6 & 3 \end{bmatrix}. \tag{2.121b}$$

# **Image and Kernel**

linear mapping에서 image와 kernel은 중요한 속성을 가진 vector space입니다. kernel과 imag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.

• mapping  $\Phi$  에 대해서 벡터 공간 V를 domain(정의역) W를 codomain(공역)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

#### Definition 2.23 (Image and Kernel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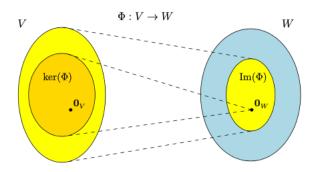
For  $\Phi: V \to W$ , we define the *kernel/null space* 

$$\ker(\Phi) := \Phi^{-1}(\mathbf{0}_W) = \{ v \in V : \Phi(v) = \mathbf{0}_W \}$$
 (2.122)

and the image/range

$$\operatorname{Im}(\Phi) := \Phi(V) = \{ w \in W | \exists v \in V : \Phi(v) = w \}.$$
 (2.123)

We also call V and W also the *domain* and *codomain* of  $\Phi$ , respectively.



직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, kernel은 mapping  $\Phi:V o W$  에서  $0_W$ 로 사상(변환)되는 벡터 V의 공간입니다. 즉,  $0_W$ (영벡터)로 보내지는 입력들의 조합입니다.

#### Remark.

- 항상  $\Phi(0_V)=0_W$  입니다. 그러므로  $0_V\in\ker(\Phi)$  입니다. 그래서 null space는 절대 공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.
- $\operatorname{Im}(\Phi) \subseteq W$ 는 W의 subspace이고,  $\ker(\Phi) \subseteq V$ 는 V의 subspace입니다.
- $\ker(\Phi) = \{0\}$  일 때,  $\Phi$ 는 injective(일대일, one-to-one) 입니다.

#### Remark. 영공간과 열공간

- $A\in\mathbb{R}^{m imes n}$  그리고 linear mapping  $\Phi:\mathbb{R}^n o\mathbb{R}^m,\ x o Ax$  이 있을 때, 다음이 성립합니다.
- 행렬 A의 column이  $a_i$  일 때,  $A=[a_1,\cdots,a_n]$ 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합니다.

$$\operatorname{Im}(\Phi) = \{ A\boldsymbol{x} : \boldsymbol{x} \in \mathbb{R}^n \} = \left\{ \sum_{i=1}^n x_i \boldsymbol{a}_i : x_1, \dots, x_n \in \mathbb{R} \right\}$$
 (2.124a)  
= span[ $\boldsymbol{a}_1, \dots, \boldsymbol{a}_n$ ]  $\subseteq \mathbb{R}^m$ , (2.124b)

용어	의미
${ m Im}(\Phi)$	Ax 가 도달 가능한 모든 벡터의 집합
열공간(column space)	A 의 열벡터들로 $span$ 된 부분공간
결론	$\operatorname{Im}(\Phi) = \operatorname{column} \operatorname{space} \operatorname{of} A$

- $\operatorname{rk}(A) = \dim(\operatorname{Im}(\Phi))$
- $\ker(\Phi)$ 는 Ax=0의 일반해입니다.
- kernel은 정의역인  $\mathbb{R}^n$ 의 subspace입니다. 여기서 n은 행렬의 width입니다.
- kernel은 열들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줍니다.

#### 예시 2.25

• 4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linear mapping  $\Phi$  가 정의되어 있습니다.

$$\Phi: \mathbb{R}^4 \to \mathbb{R}^2, \quad \begin{bmatrix} x_1 \\ x_2 \\ x_3 \\ x_4 \end{bmatrix} \mapsto \begin{bmatrix} 1 & 2 & -1 & 0 \\ 1 & 0 & 0 & 1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x_1 \\ x_2 \\ x_3 \\ x_4 \end{bmatrix} = \begin{bmatrix} x_1 + 2x_2 - x_3 \\ x_1 + x_4 \end{bmatrix}$$
(2.125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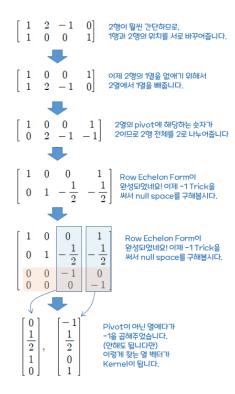
• 이를 다시 열성분으로 표현 (열벡터의 일차 결합) 할 수 있습니다.

$$=x_1\begin{bmatrix}1\\1\end{bmatrix}+x_2\begin{bmatrix}2\\0\end{bmatrix}+x_3\begin{bmatrix}-1\\0\end{bmatrix}+x_4\begin{bmatrix}0\\1\end{bmatrix} \ \ (\textbf{2.125b})$$

•  $\operatorname{Im}(\Phi)$ 는 열벡터로 span되는 subspace 이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$$\operatorname{Im}(\Phi) = \operatorname{span}\begin{bmatrix} 1\\1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2\\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-1\\0 \end{bmatrix}, \begin{bmatrix} 0\\1 \end{bmatrix}]. \tag{2.126}$$

• 이제  $\ker(\Phi)$ 를 구하기 위해서 Ax=0을 만족하는 x를 구할 수 있습니다.



#### Theorem 2.24 (Rank-Nullity Theorem)

• Vector space V,W 와 linear mapping  $\Phi:V o W$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.

$$\dim(\ker(\Phi)) + \dim(\operatorname{Im}(\Phi)) = \dim(V). \tag{2.129}$$

- 만약  $\dim(\operatorname{Im}(\Phi)) < \dim(V)$  라면  $\ker(\Phi)$ 는 nontrival입니다.
  - $\circ$  즉  $0_V$ 가 아닌 원소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므로  $\dim(\ker(\Phi)) < 1$ 을 만족합니다.

- $A_{\Phi}$ 가 ordered basis에 때한  $\Phi$ 의 변환행렬 A 이고,  $\dim(\mathrm{Im}(\Phi))<\dim(\mathrm{V})$  이 성립하면 Ax=0은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
  - $\circ$   $\ker(\Phi)$ 가 공집합이 아니므로  $0_V$ 가 아닌  $\ker(\Phi)$ 에 있는 벡터로 무한히 많은 벡터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.
- $\dim(V) = \dim(W)$  라면  $\Phi$  는 injective, surjective, bijective 합니다.

# 출처

- Mathmatics for Machine Learning (https://github.com/mml-book/mml-book.github.io)
- https://junstar92.github.io/mml-study-note/2022/07/05/ch2-7.html
- https://data-science-hi.tistory.com/102
- https://ahracho.github.io/posts/math\_stat/linear\_algebra/2018-08-15-9\_orthogonality\_projection/
- $\bullet \ \underline{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} \underline{ b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} \underline{ b$
-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2LTAUO1TdA
- <a href="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QhTuRlWMxw"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QhTuRlWMxw</a>